

◇식도암 수술후 발생한 저빈도 치명적 합병증 분석

김성철, 심영목, 김진국, 김관민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식도암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중 몇몇은 발병시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. 그러나 이들 치명적인 합병증에 대한 발생가능성을 술전에 미리 인식하고 있다면 이들 합병증의 발생을 얼마간 감소 시키거나 손상의 정도를 줄일 수 있을것이다.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식도암수술 자체에 기인되어 발생한 치명적 합병증들을 분석하여 보았다.

방법 : 삼성서울병원이 개원한후 식도암으로 수술받은 환자 127명 중 수술과 관련하여 치명적 합병증이 발생했던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의 종류, 수술전후의 병기와 합병증과의 연관성 및 수술후 합병증 발생시 까지의 기간과 치료법 등을 분석하여 보았다.

결과 : 모두 남자였으며 연령은 52 ~ 71[평균 62세] 였고 모두 편평세포암 이었다. 식도암의 위치는 5례에서 상흉부에 위치한 식도암 이었고 3례는 중흉부에 위치한 식도암 이었으며 수술은 2구역 림파절 광청술을 포함한 Ivor Lewis술식 2례, 3구역 림프절 광청술 및 경부 식도위문합술이 4례, 식도열공을 통한 식도적출술 및 경부 식도위문합술이 2례 였다. 총8명의 환자중에서 경추골수염이 1례, 위-공동누공이 1례, 위-기관누공이 3례, 이식편괴사 3례 등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의 술후 병기는 1기가 1례, 3기 3례, 4기 4례 였다. 식도암 수술후 합병증 발생시 까지 8 ~ 95 일로 평균 33일 이었으며 이중 조기 수술사망은 1명 이었으며 위-공동누공과 기관-식도누공 2명만이 치료되어 외래관찰 중이다.

결론 : 이러한 치명적인 합병증이 초래된 경우는 대부분 진행된 식도암에서, 광범위한 수술을 시행했던 환자 및 고식적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발생했으며 발생시 사망율이 높았다. 식도암 수술후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은 호흡기 합병증이며, 이에 대한 치료법과 예방법은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 보이고자 하는 합병증은 매우 드물고 치료방법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. 그러나 이 같은 예들이 보고됨으로서 비교적 일찍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.

책임저자:심영목(삼성서울병원) 발표자:김성철(삼성서울병원)